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24-07-노동-0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신하나 위원장 010-7744-2116)

제 목: [취재요청]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담회 /
2024. 7. 30.(화) 14: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지하1층)

전송일자: 2024. 7. 29.

전송매수: 총 2매

[취재요청]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담회

- 일시: 2024. 7. 30.(화) 14:00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리셀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지 35일이 지났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법 위반과 안전 경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은 유가족과의 교섭에 전혀 임하고 있지 않으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3. 그 과정에서 사측 대리인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노무사가 민사 합의를 하거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데도 유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별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뿐 아니라, 사측 대리인들의 불법적이고 집요한 개별 합의 종용으로 인한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의 악질적인 합의 행태를 밝히
고자 기자회견담회를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신하나(010-7744-2116)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진행: 신하나 변호사(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단장)
- 발제 : 손익찬 변호사(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 발언 : 유가족 발언

2024. 7. 29.(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